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9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4.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600명 추가 확진으로 총 4,812명, 서울시 99명 중 26명이 완치되원
- 미국, 워싱턴 주에서 사망자 6명(4명 추가), 집단감염 의심사례 발생
-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증상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 입원치료
- 정부, 목적예비비 투입으로 마스크 수급, 가정돌봄 긴급지원 등에 배정
-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대구에서 첫 가동, 확진환자 급증세를 감안시 추가확보 필요
- 서울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군 협력.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4개소 운영

1. 발생 현황

코로나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3. 00시 기준

	확진자	사망자	완치	의사환자**	검사중	결과음성	자가격리자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99	0	13	14,189	4,104	10,085	3,278	1,663	1,615
전국	4,812	28	34	121,039	35,555	85,484	-	-	-
전세계	89,077	3,049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03. 18시 기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서울시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기반 작성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연경 연구원/ ☎ 02-2276-8792 (unirtv@seoulmc.or.kr)

● 서울시 전일 대비 1명 추가 환자 발생, 총 99명 보고됨

- 입원환자 73명, 격리해제 26명 / 질본확진환자 98명
- 사망자는 28명으로 치명률은 0.58%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없음**
- 서울시 신규확진자 감염경로는 현재 파악 중이며, 기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
- 성동구 A아파트 집단 감염관련 확진자는 금일 보고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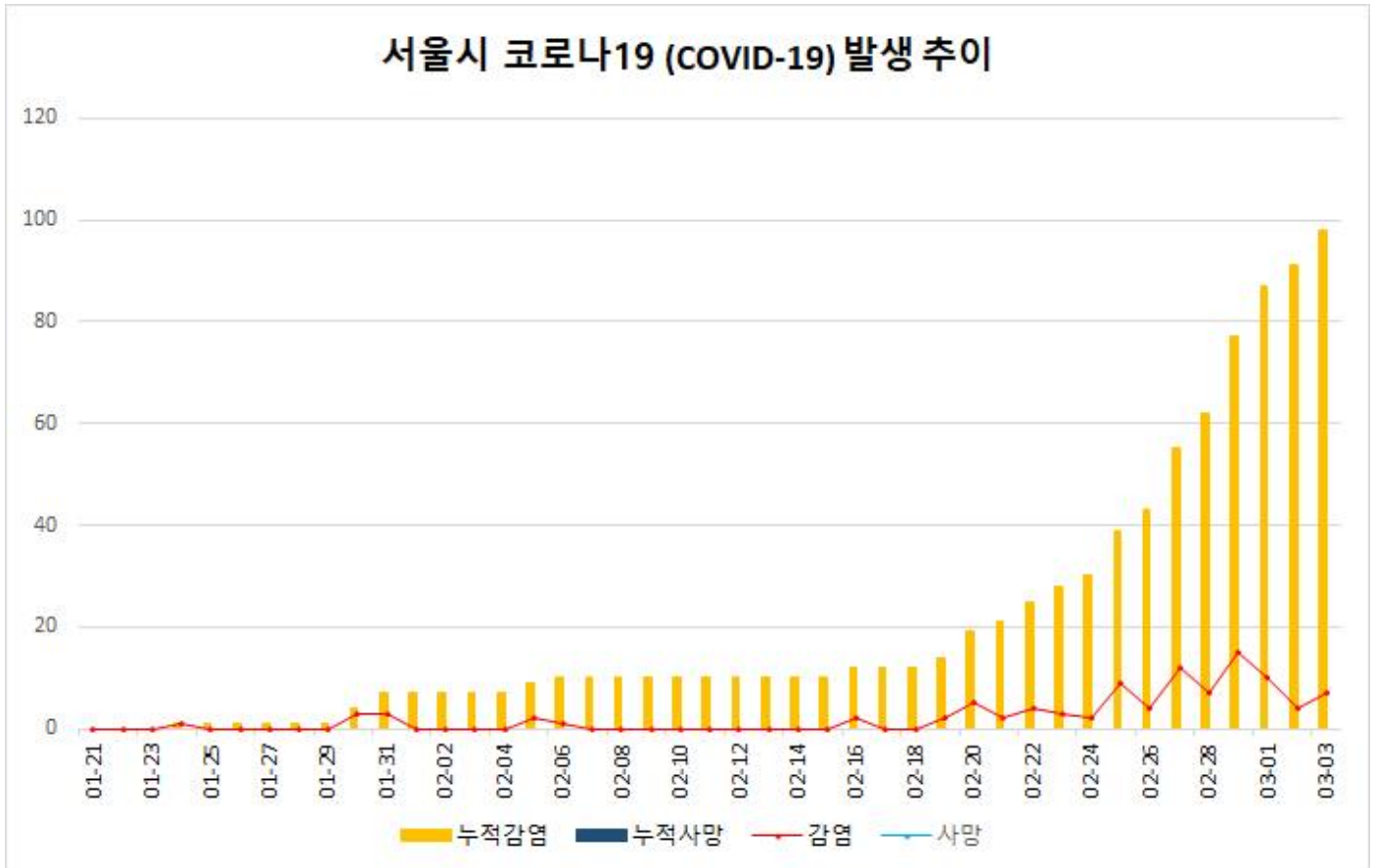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3. 16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자가격리현황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계	격리 중	격리 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계	감시중	감시 해제	진료	검체검사	X-ray
서울시	3.2.(월) 16시 기준	98	86	13	14,189	4,104	10,085	3,278	1,663	1,615	1,857	1,222	추후포함 예정
	3.3.(화) 16시 기준	99	73	26	18,791	5,491	13,300	3,637	1,909	1,728	1,309	807	37
	증감	1▲	13	13▼	4,602▲	1,387	3,215▲	359▲	246▼	113▲	548 (41.9%▼)	415 (51.4%▼)	-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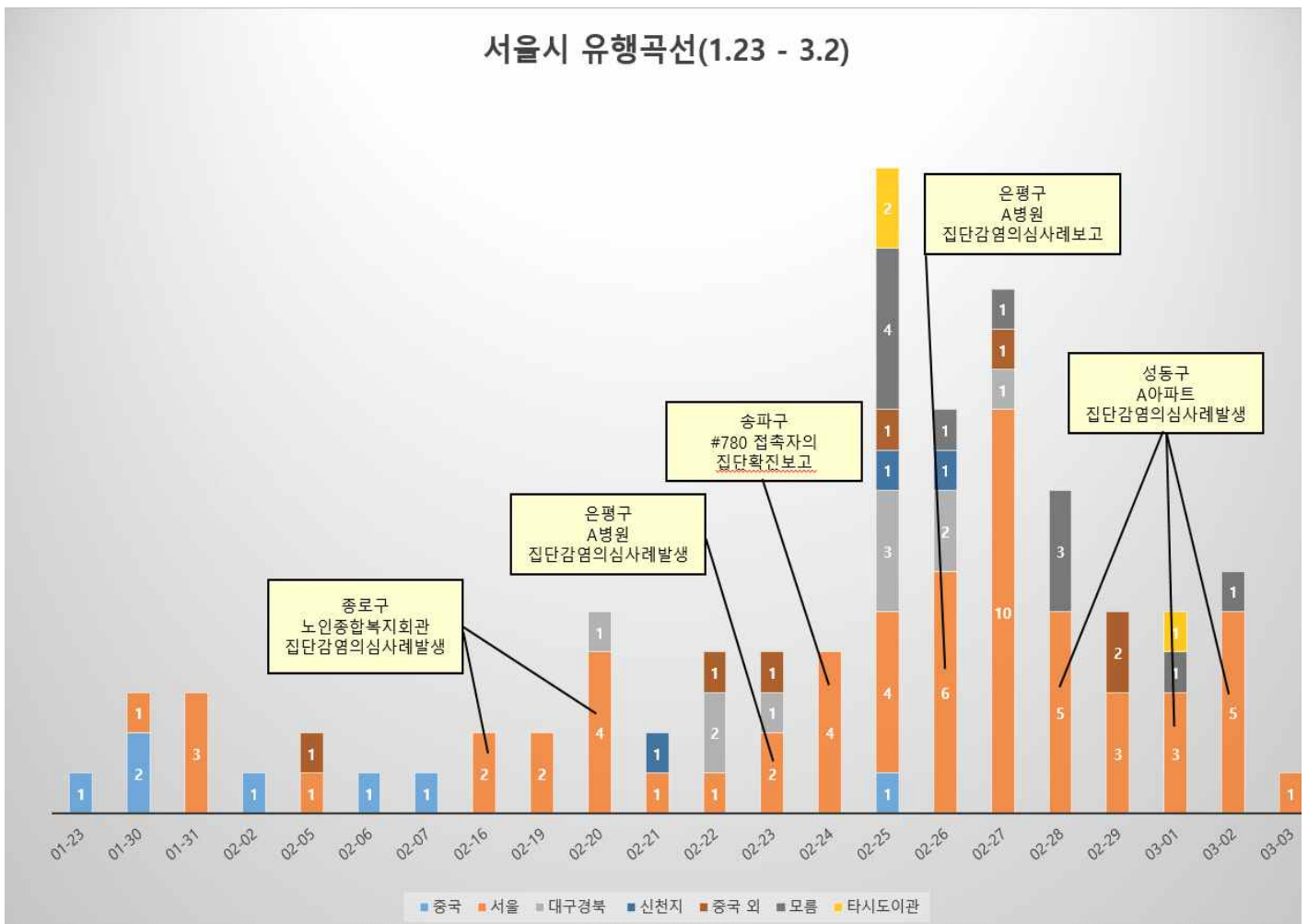
출처: 의료방역반 일일상황보고 (3.1. 10:00 기준)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2020.3.3.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기준)

서울시 유행곡선(1.23 - 3.2)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 곡선 (*서울시코로나19확진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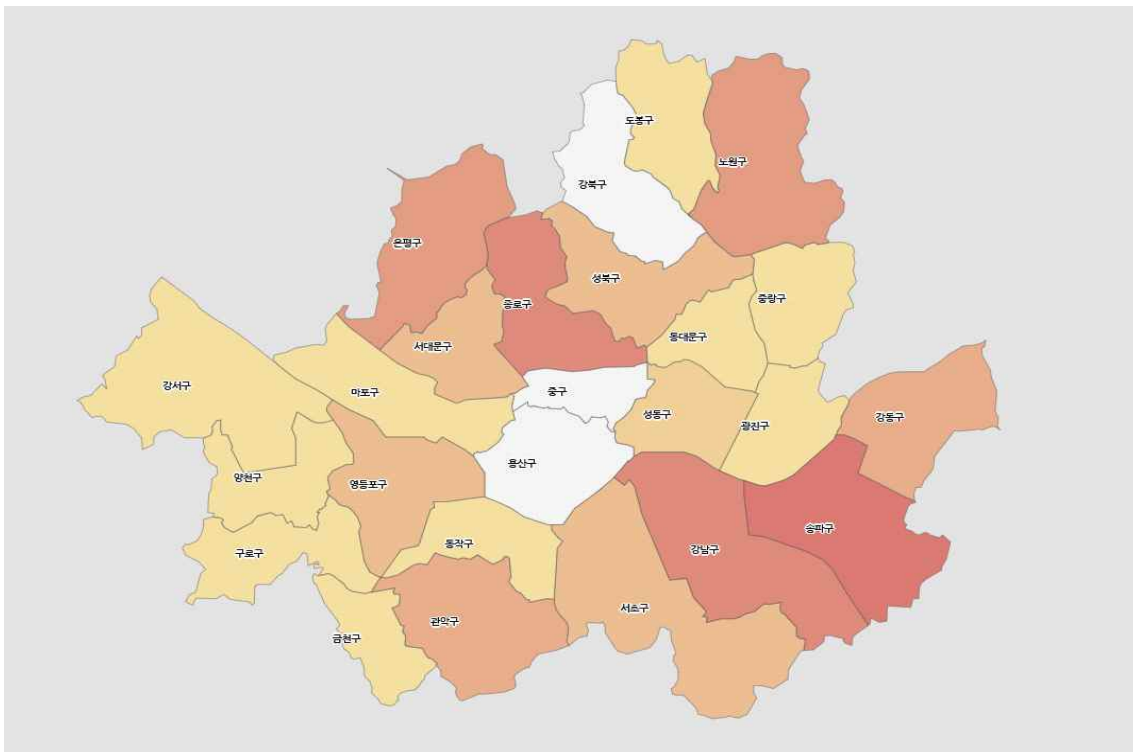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99명(종로11, 성동3, 동대문1, 중랑1, 성북4, 노원8, 은평8, 서대문4, 마포1, 양천2, 강서2, 구로1, 동작2, 관악5, 서초4, 송파12, 강동5, 강남9, 광진2, 영등포4, 도봉1, 금천1, 기타9(타시도 이관)
- 총 22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송파	종로	강남	노원	은평	관악	강동	서대문	영등포	성북	서초	성동	양천	강서	광진	동작	도봉	마포	구로	중랑	동대문	금천	중구	강북	용산	기타	계
확진	12	11	9	8	8	5	5	4	4	4	4	3	2	2	2	2	1	1	1	1	1	1	-	-	-	9	99
환자	-	-	-	-	1	-	-	-	-	-	-	-	-	-	-	-	-	-	-	-	-	-	-	-	-	-	1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확진자 건강상태(2020.3.2. 18:00 기준)

(단위 : 건)

환자구분			상태부분 (퇴원환자제외)					
계	환자	의료인	소계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	*확인중
99	97	2	73	58	11	3	1	0

*확인중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로부터 수합요청

● 서울시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2020.3.2. 18: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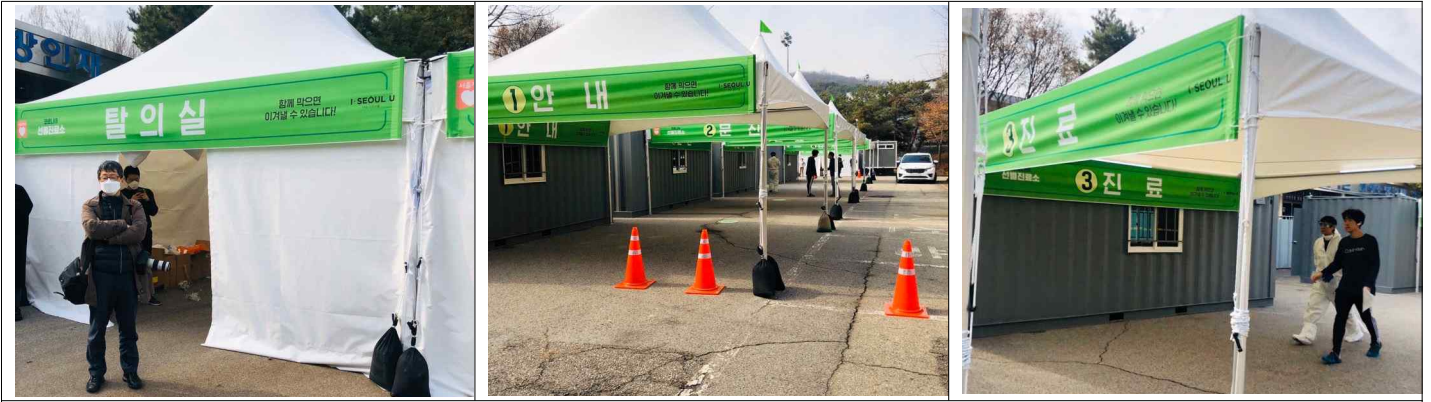
(단위 : 건)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75	36	30 ¹⁾	6	2)	39	5	6	7	21

1) 내 선별진료소 증가(1개소): 29 → 30개소, 송파구

2)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설치예정(4개소): ,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3.3.), 이대서울병원(3.5.)

● 선별진료소 3곳 개소(3.3.)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개소: 소방학교(3.3)

사진: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개소: 잠실주경기장(3.3)

사진: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선별진료소의 검사인력을 위한 대응 지침과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의 이용안내와 시행할 검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배너를 통해 안내가 필요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2. 18:00 기준)

(: 개소)

합 계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종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1	30*	1	

* 25개구 중 성북·금천·노원·은평·송파구 2개 운영 그 외 자치구 1개 운영 (송파구 3.2.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 자치구 보건소 운영 현황(2020.3.1. 18:00 기준)

(단위 : 건)

	진료		검체		X-ray	
	금일(3.1)	누 계	금일(3.1)	누 계	금일(3.1)	누 계
2020.3.1.	1,309	26,945	807	13,333	37	891

● 자치구 보건소 운영 세부운영 현황(2020.3.1. 18:00 기준)

(단위 : 건)

분	진료		검체 검사		X-ray	
	금일(3.1)	누계	금일(3.1)	누계	금일(3.1)	누계
계	1,309	26,945	807	13,333	37	891
평균	52	1078	32	533	1.5	35
	14	1,310	14	1,067	0	0
중구	10	813	7	185	0	19
용산구	27	835	27	783	0	1
성동구	30	754	22	176	21	290
광진구	68	1,097	36	336	10	104
동대문구	61	837	37	347	0	0
종랑구	14	346	13	322	0	0
성북구	39	537	17	214	0	3
강북구	150	1,207	19	116	0	12
도봉구	146	869	24	209	5	196
노원구	7	623	7	332	0	0
은평구	56	1,840	52	1,327	0	16
서대문구	46	1,194	25	375	0	11
마포구	33	856	26	585	0	0
양천구	27	778	7	260	0	1
강서구	29	923	28	690	0	51
구로구	52	1,496	47	863	0	13
금천구	44	1,276	36	730	0	3
영등포구	24	417	23	327	0	0
동작구	71	1,316	38	437	0	1
관악구	60	1,385	54	724	0	8
서초구	93	2,269	66	775	1	120
강남구	120	1,938	107	1,047	0	40
송파구	50	878	45	499	0	0
강동구	38	1,151	30	607	0	2

● 의료기관 운영 현황(2020.3.2. 18:00 기준)

(단위 : 건)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2)	누계	금일(3.2)	누계	
	890	24,498	612	8,599	
국가지정	98	4,318	80	1,939	
지역거점	327	3,982	228	1,781	
국공립병원	94	1,522	81	14,178	
민간병원	371	14,676	223	3,701	

● 대구·경북지역 방문 후 확진 보고된 사례 분석

2020.3.3.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김연경

·경북지역을 방문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서울시 거주 확진자 총99명 중 8명임.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이 공통적임. 방문목적으로는 업무상 출장(2명), 조문(1명), 결혼식 참석(1명), 가족 및 지인과의 만남(4명)임. 대구·경북지역 방문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증상 발현까지 평균 2.5일, 검사 결과 양성 보고되어 확진 판정까지 평균 5.5일임.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거주민들과 단시간 단순접촉이 아닌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뷔페, 식당 등을 방문) 친목도모를 위해 장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는 등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졌음. 또한 이들이 접촉한 대구·경북지역 거주민들은 이들보다 1-2일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음.

결론적으로, 대구·경북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서울시 거주 확진자 8명의 감염경로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정지역 방문을 감염경로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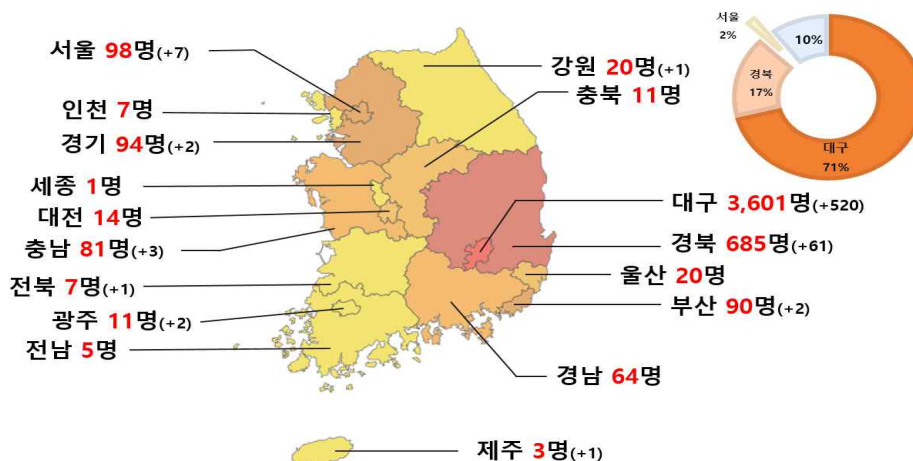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4,81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00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28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58%으로 확인됨.
- **확진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발생(cluster)이 56,1%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3.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2.(월) 0시 기준	109,591	4,212	31	4,159	22	105,379	33,799	71,580
3.3.(화) 0시 기준	125,851	4,812	34	4,750	28	121,039	35,555	85,454
증감	16,260 (12.9%)	600 (12.5%)	3 (8.2%)	591 (12.4%)	6 (21.4%)	15,660 (12.9%)	1,756 (4.9%)	13,904 (16.2%)

- 새롭게 확진된 환자 600명의 현황

지역	확진환자			주요 기타 유행
	누계(명)	신규(명)	(%)	
서울	98	(+7)	2.3	은평성모병원(14명), 종로 노인복지회관(6명), 신천지(4명), 명륜교회(3명) 관련 등
부산	90	(+2)	2.2	온천교회(31명), 확진자 접촉자(26명), 신천지(9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대구	3,601	(+520)	71.0	신천지(2,383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인천	7		0.2	신천지(1명), 확진자 접촉자(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광주	11	(+2)	0.3	신천지(8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대전	14		0.3	확진자 접촉자(8명) 관련 등
울산	20		0.5	신천지(10명) 관련 등
세종	1		0.0	신천지(1명) 관련 등
경기	94	(+2)	2.2	확진자 접촉자(48명), 신천지(16명), 기존 해외유입(6명) 관련 등
강원	20	(+1)	0.5	신천지(7명) 관련 등
충북	11		0.3	신천지(5명) 관련 등
충남	81	(+3)	1.9	천안시 운동시설(55명), 신천지(2명) 관련 등
전북	7	(+1)	0.2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전남	5		0.1	신천지(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경북	685	(+61)	16.4	신천지(229명), 청도 대남병원(115명), 성지순례(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23명), 경산 서란요영원(13명), 김천소년교도소(3명), 한국전력지사(4명) 관련 등
경남	64		1.5	신천지(22명), 거창교회(10명), 한마음창원병원(6명), 부산 온천교회(2명) 관련 등
제주	3	(+1)	0.1	-
총계	4,812	(+600)	100.0	전국 환자 중 신천지 관련 2,698명(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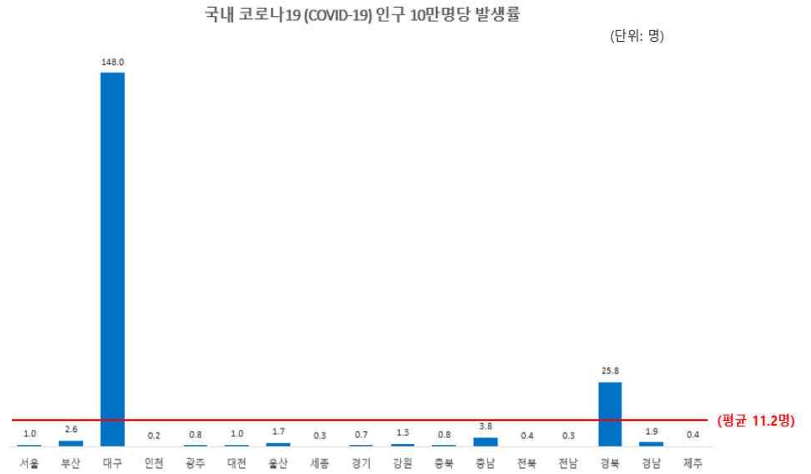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발생률 (2020.3.3.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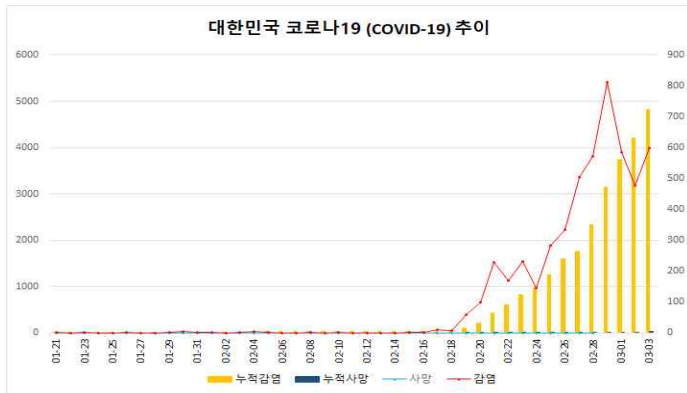
NO.	확진환자(명)		인구10만명당 발생률(명)	
1	대구	2,971	대구	148.0
2	경북	685	경북	25.8
3	서울	98	충남	3.8
4	경기	94	부산	2.6
5	부산	90	경남	1.9
6	충남	81	울산	1.7
7	경남	64	서울, 대전	1.0

- *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발생률은 대구가 148.0명으로 가장 높음
-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 98명으로 3위로 보고되었으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발생률은 1.0명으로 평균 11.2명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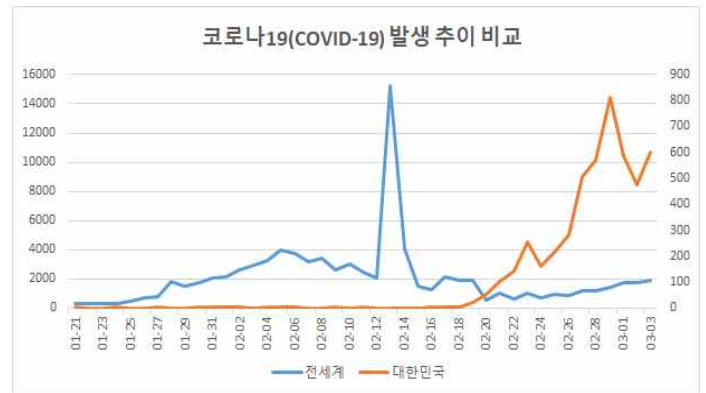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환자 수

- 국내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3.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3.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 24만5000명, 교육생 6만5000명 등 총 31만명 명단을 압수하여, 이 중 미성년자와 해외신도를 제외한 신도 19만5000명, 교육생 4만4000명 명단을 시·도(지자체)에 제공하여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해 각 지방단체의 증상유무 조사가 **98.7%(192,634명/195,162명)** 완료됨(3.3. 0시 기준)
- 이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검사는 **49.6%(6,561명/13,241명)** 진행 후 검사 결과 확인중
 - * 3.2. 기준 대구 신천지 신도 2/3에 해당되는 약 6,000여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검사 진행 중
 - * 이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약 62%(2,685명/4,328명)**으로 확인됨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 신도 양성 감염률은 **약 1.7%**로 확인됨).
 - * 중대본은 대구 신천지교회 약 9,000명 신천지교회 신도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 시행함
-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 등에 의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2주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 실시 예정

●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도입·운영**

- 의료진과 환자, 대기환자 간 접촉 최소화, 검사·진료 속도 극대화
 -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피검사자는 증가하였으나,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
 - * 기존의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방법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1대1 진료를 하게 되면서 위험 노출도 크고, 검사대기로 인한 환자 간 상호 감염 위험도 높음
- 의심환자나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차를 탄 채로 이동식 선별진료소로 진입하면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진료, 접수, 수납, 검체 채취까지 일련의 과정을 차량 내부에서 실시
 - * 피검사자가 차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환자 간 감염 위험성이 낮음
 - * 검사속도도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1시간 걸리던 검사를 1/6 수준인 10분 만에 진행할 수 있기에 신속한 진료·검사가 가능함
 - * 음압텐트 등 별도 장비 없이 소독과 환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의료진의 방호복 및 마스크 소모도 줄일 수 있음

국내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DT) 운영 현황

- * 칠곡 경북대병원
- * 대구 영남대병원
-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 제1공용주차장
- * 세종시, 인천, 구미, 포항, 경주, 천안 등
- * 서울
 - (3.3) 서초 소방학교, 은평 은평병원, 송파 잠실주경기장
 - (3.5) 강서 이대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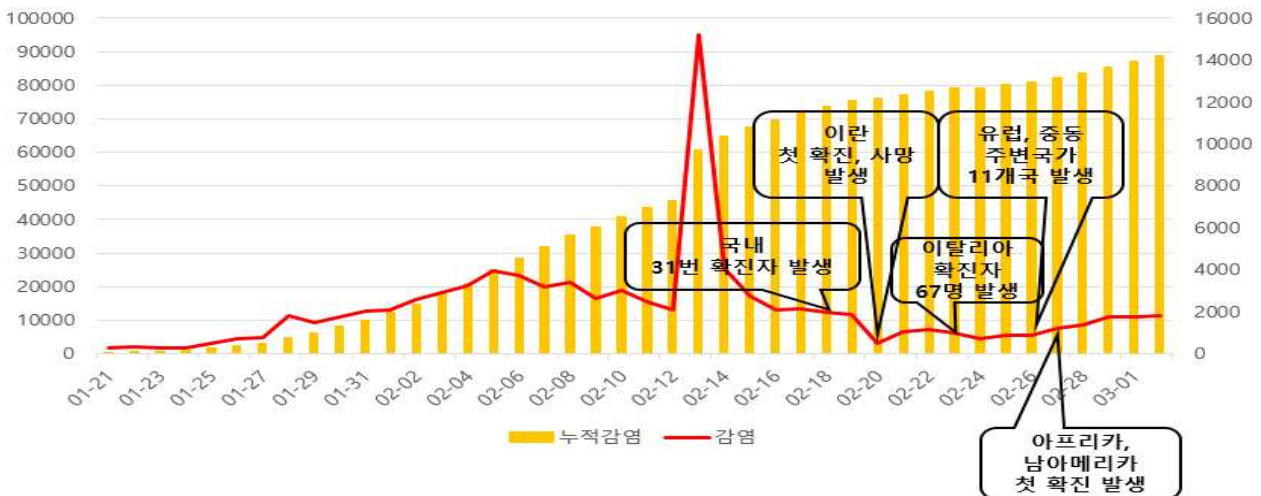
● 전 세계 발생 현황

- 1,859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90,936명(전일 대비 2.09%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3,11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3.45%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69개에서 77개(*포르투갈, 안도라, 요르단, 라트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튀니지)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3.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80,151	2,944	27	스웨덴	15	0	53	포르투갈	2	0
2		4,812	29	28	레바논	13	0	54	이집트	2	0
3	이탈리아	2,036	52	29	이스라엘	10	0	55	아프가니스탄	1	0
4	이란	1,501	66	30	마카오	10	0	56	안도라	1	0
5	일본	274	6	31	아이슬란드	9	0	57	아르메니아	1	0
6	프랑스	191	3	32	산마리노	8	1	58	벨라루스	1	0
7	독일	165	0	33	크로아티아	8	0	59	도미니카공화국	1	0
8	스페인	120	0	34	벨기에	7	0	60	에스토니아	1	0
9	싱가포르	108	0	35	그리스	7	0	61	아일랜드	1	0
10	미국	105	6	36	카타르	7	0	62	요르단	1	0
11	홍콩	100	2	37	핀란드	6	0	63	라트비아	1	0
12	쿠웨이트	56	0	38	에콰도르	9	0	64	리투아니아	1	0
13	바레인	49	0	39	멕시코	6	0	65	룩셈부르크	1	0
14	태국	43	1	40	오만	6	0	66	모나코	1	0
15	대만	41	1	41	알제리	5	0	67	모로코	1	0
16	영국	40	0	42	인도	4	0	68	뉴질랜드	1	0
17	스위스	38	0	43	파키스탄	4	0	69	나이지리아	1	0
18	호주	33	1	44	체코	3	0	70	북마케도니아	1	0
19	말레이시아	29	0	45	덴마크	3	0	71	사우디아라비아	1	0
20	캐나다	27	0	46	필리핀	3	1	72	세네갈	1	0
21	이라크	26	0	47	아제르바이잔	3	0	73	튀니지	1	0
22	노르웨이	25	0	48	조지아	3	0	74	캄보디아	1	0
23	아랍에미리트	21	0	49	루마니아	3	0	75	네팔	1	0
24	오스트리아	18	0	50	러시아	3	0	76	스리랑카	1	0
25	네덜란드	18	0	51	브라질	2	0	77	일본 크루즈	705	6
26	베트남	16	0	52	인도네시아	2	0	합계		90,936	3,118
											3.45%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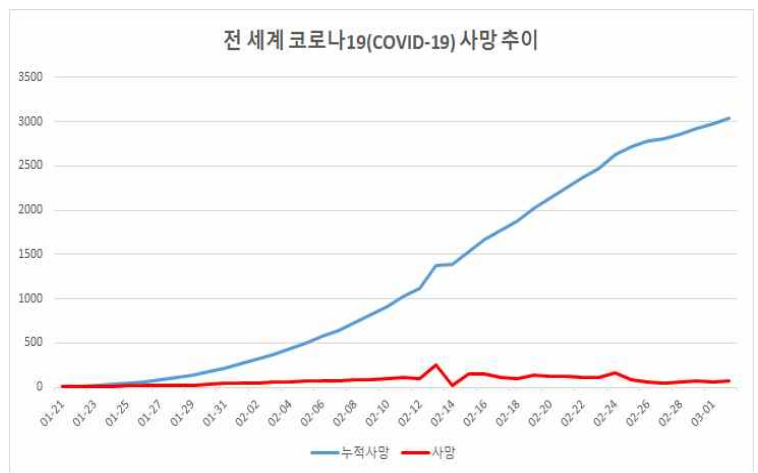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2.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치명률	발생율
1	미국	6	5.71	0.03
2	이란	66	4.40	1.83
3	중국	2,944	3.67	5.75
4	호주	1	3.03	0.13
5	이탈리아	52	2.55	3.37
6	대만	1	2.44	0.17
7	태국	1	2.33	0.06
8	일본	6	2.19	0.22
9	프랑스	3	1.57	0.29
10	한국	29	0.60	9.32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3. 16:00기준)



세계 코로나19 사망 추이 현황 (2020. 3. 2. 18:00)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WHO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의 코로나19, 가장 큰 관심사**

- *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9배 더 많아(2020. 3. 1. 기준)
- * 한국의 4,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의 절반을 넘는 것임.
- * 한국의 사례는 5개의 클러스터에서 의심되는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 감시 조치의 효과가 있고 감염병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확진 사례로 보고된 90%는 중국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한 지방(후베이성)에서 발생하여 팬데믹 선언은 긴 안목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음.
- * WHO팀은 이란의 의료진(1,500여명)에게 제공할 보호 장비, 진단키트(10만명 진단 가능)등을 전달할 예정임
- *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정 민족 등에 대한 낙인찍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진단키트나 장비 등을 보냈지만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음.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 **'긴급사태' 선언한 日 홋카이도 코로나19 940여명 감염 가능성 있어**

- * 지난 2월 27일까지 홋카이도에서 확인된 감염자 77명이지만 추계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견해 밝힘(홋카이도대 니시우라 리호시 이론역학 교수).
- * 홋카이도 여행 후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 감염이 확진된 환자의 수와 홋카이도 내 공항을 이용한 인원 수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 니시우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2,000명에 육박함.
- * 홋카이도는 확진자 77명, 사망자 3명에 달해 전체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긴급사태 선언함.
- * 하루에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홋카이도 지사는 2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3주간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함. 외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앙으로 긴급 지원 요청을 제안함.
- * 긴급사태 배경으로는 다수의 집단감염 의심사례(교육현장, 전시회장 등)가 있어, 감염 확산 경로 파악 중임.
- * 25일에 설치한 클러스터 대책반은 홋카이도 7명, 치바현 2명, 가나가와현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건소의 역학조사방법의 검토 또는 감염 확대 방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종언을 실시하고 있음. 오사카의 요청으로 파견 예정임.

-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산일 -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에서 첫 확진자 발생

- * 보건 인프르가 취약한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
- *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보건부는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자국 남성 1명이 확진자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상태 안정적이라고 설명함
- *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네갈에서 확진자 발생함. 세네갈 보건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를 방문한 후 귀국한 프랑스인 남성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 * 튀니지 보건부는 이탈리아 방문 한 튀니지인 남성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힘.
- * 알제리는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함. 프랑스에서 귀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50km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음.
- * 이집트 보건부는 지난 달 19일에 입국한 캐나다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발표함(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 아프리카 대륙은 진단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요 발병국인 중국과의 교류가 밀접하여 감염자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임.
- * 검진할 능력뿐만 아니라 치료할 시설도 열악해 코로나19 확산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 확진환자 8,774명(전일 대비 1598명 추가, 22.3%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128명(전일 대비 24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46%로 확인됨.

- 중국 외 지역의 코로나19 1차 파동 시작

-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는 것은 대중의 공포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홍콩대학 가브리엘 령 교수).
- *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출현은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힘.
- *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진단 검사를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국 내의 1차 파동은 통제될 수 있지만, 중국 밖에서의 '1차 파동'은 이제 막 시작됐을 수 있다고 함.
- *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 *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산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춘제 연휴 후 일터 복귀와 생산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의 '2차 파동'을 불러올 수 있음.

- 미국 - 워싱턴 주에서 사망자 6명(4명 추가) 발생함.

- * 워싱턴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 * 사망자 및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온상으로 떠오른 커클랜드의 장기요양시설과 연관성이 확인됨(전체 사망자 6명 중 5명이 이 시설 입주자로 확인됨).
- * 지난 주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입주자와 직원 50여명도 유사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대량 발병이 의심되고 있음.
- * 킹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킹카운티가 속한 워싱턴 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임.
- *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중 한국인 발생함. 50대 여성으로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방문을 하였으며 시애틀로 돌아온 후 우체국에서 하루 근무를 한 후 퇴근 무렵 증상이 발생하여 자가격리 되었음.
- *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우려 있음. 확진판정을 받은 워싱턴주 고등학생, 오리건주 초등학교 직원,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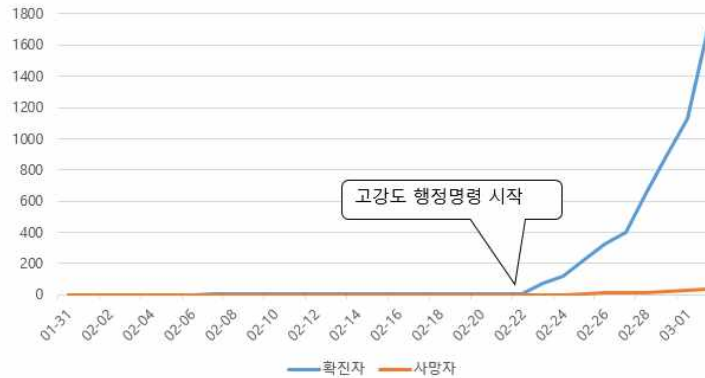
- 이란 - 신규 확진자 385명(총978명), 사망자 11명(총 54명) 발생함.

- * 국가 지도층이 잇따라 감염되거나 사망하고 있음.
국회의원, 주바티칸 대사를 역임한 성직자, 국정조정위원회 위원(최고지도자 국정 자문) 사망함.
이란의 최고위층 부통령, 보건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확진된 상태임.
- * 고위층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이유 - 중국인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점, 의심증사자들 가운데 고위층이 먼저 검사를 받기 때문에 감염 여부도 빨리 파악할 수 있음.
- * 이란의 치명률은 4.4%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음. 다른 발병국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늦게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남.
- * 확진자와 사망사 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음 - 영국 BBC는 지난 28일 병원 소식통 말을 이용해 이란내 사망자는 최소 219명이라고 보도함. 이는 이란 정부가 발표한 수보다 약 5배 많음.
- * 확진 검사 제대로 못하거나 국민 통제를 위해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훌륭한 의료 수준으로 최소 123명을 치료했으며, 싱가포르·이탈리아·일본·한국보다 많다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에 기재함.

- **이탈리아 - 코로나19 확산 앞으로 일주일도 못가 분수령**

- *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장은 종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효과를 주말에 확인할 수 있음.
- * '슈퍼 전파자'가 확인된 북부 11개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제한령'을 내림
- * 지난 2월 22일에 학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다중시설 전면 폐쇄, 문화·스포츠·종교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발효함.
- * 행정명령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확산세가 서서히 둔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폭증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 *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를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환자 수가 급증한 측면이 있으며, 무증상 접촉자도 진단 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일부 주에서 과도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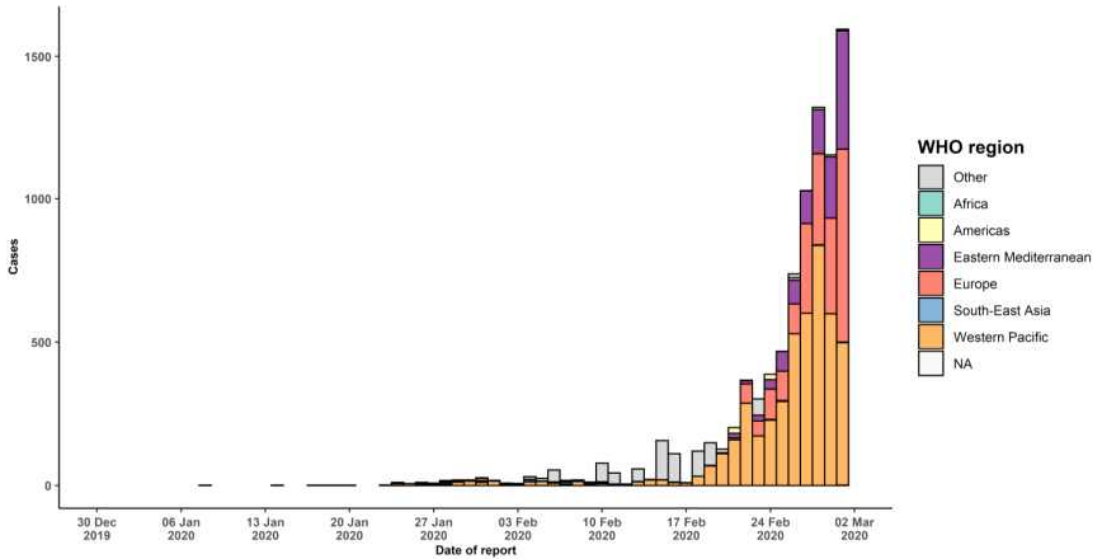
이탈리아 코로나19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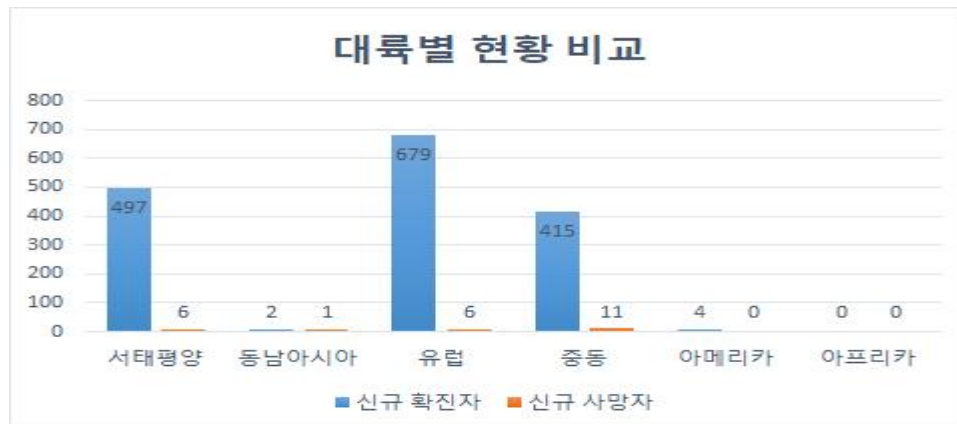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4212	476	22	4	지역 전파	0
일본	254	15	6	1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06	4	0	0	지역 전파	0
호주	27	2	1	1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24	0	0	0	지역 전파	3
베트남	16	0	0	0	지역 전파	18
필리핀	3	0	1	0	해외 유입	27
캄보디아	1	0	0	0	해외 유입	35
뉴질랜드	1	0	0	0	해외 유입	3
유럽						
이탈리아	1689	561	35	6	지역 전파	0
독일	129	72	0	0	지역 전파	0
프랑스	100	0	2	0	지역 전파	1
스페인	45	0	0	0	지역 전파	1
영국	36	13	0	0	지역 전파	0
스위스	24	6	0	0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19	4	0	0	지역 전파	0
스웨덴	14	1	0	0	해외 유입	0
네덜란드	13	6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10	0	0	0	해외 유입	1
크로아티아	7	0	0	0	지역 전파	1
그리스	7	4	0	0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7	0	0	0	해외 유입	1
핀란드	6	4	0	0	지역 전파	0
덴마크	4	1	0	0	지역 전파	0
아제르바이잔	3	0	0	0	해외 유입	1
체코	3	3	0	0	해외 유입	0
조지아	3	0	0	0	해외 유입	1
루마니아	3	0	0	0	해외 유입	2
아이슬란드	2	2	0	0	해외 유입	0
러시아	2	0	0	0	해외 유입	31
아르메니아	1	1	0	0	해외 유입	0
벨라루스	1	0	0	0	해외 유입	3
벨기에	1	0	0	0	해외 유입	27
에스토니아	1	0	0	0	해외 유입	4
아일랜드	1	0	0	0	해외 유입	1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3
룩셈부르크	1	1	0	0	해외 유입	0
모나코	1	0	0	0	조사중	1
북마케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5
산마리노	1	0	0	0	지역 전파	2
동남아시아						
태국	42	0	1	1	지역 전파	1
인도	3	0	0	0	해외 유입	28
인도네시아	2	2	0	0	지역 전파	0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38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35
중동						
이란	978	385	54	11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56	11	0	0	해외 유입	0
바레인	47	7	0	0	해외 유입	0
아랍에미리트	21	2	0	0	지역 전파	0
이라크	19	6	0	0	해외 유입	0
레바논	10	1	0	0	해외 유입	0
오만	6	0	0	0	해외 유입	3
파키스탄	4	0	0	0	해외 유입	1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2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카타르	3	2	0	0	해외 유입	0
이집트	2	1	0	0	해외 유입	0
아프가니스탄	1	0	0	0	해외 유입	7
아메리카						
미국	62	0	0	0	지역 전파	2
캐나다	19	0	0	0	지역 전파	1
멕시코	5	3	0	0	해외 유입	0
브라질	2	0	0	0	해외 유입	1
도미니카공화국	1	1	0	0	지역 전파	0
에콰도르	1	0	0	0	해외 유입	1
아프리카						
알제리	1	0	0	0	해외 유입	6
나이지리아	1	0	0	0	해외 유입	3
기타						
일본 크루즈	706	1	6	0	지역 전파	0
총 합	8,774	1,598	128	24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2.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코로나19 대륙별 발생현황 (2020. 3. 2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151명(전일 대비 125명 추가, 0.16%증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2,943명 (전일 대비 31명 추가)으로 치명률 3.67%로 확인됨.
- *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3.3.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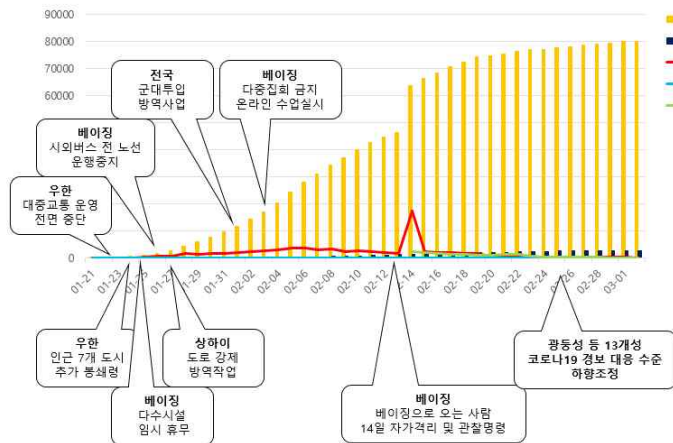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2.(월) 9시 기준	80,026	2,912
3.3.(화) 9시 기준	80,151	2,943
증감	125	31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2. 18:00.기준) (출처) (출처) WHO Sit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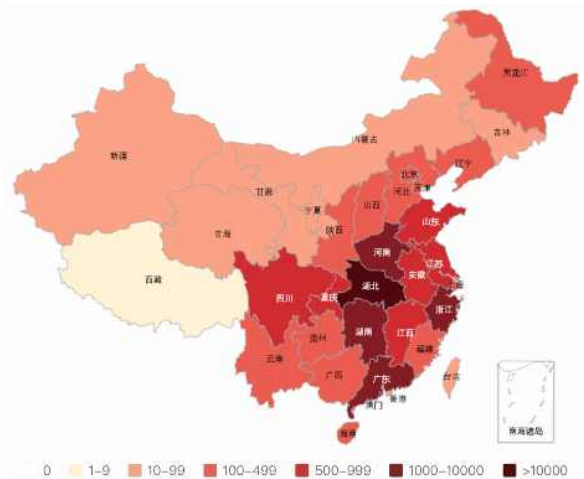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196	80	42	67,103	2,803
광둥성	11,346	1	0	0	1,350	7
허난성	9,605	0	0	0	1,272	22
저장성	5,737	1	4	0	1,206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1	12	0	414	8
홍콩	745	3	0	0	98	2
대만	2359	1	0	0	40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3	45	0	7,663	67
총 합	148,823	206	141	42	80,174	2,915

* 베이징의 전일 의심환자 18명 중 확진 1명으로 보고됨.

중국 코로나19(COVID-19) 추이



중국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2.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출처) <http://ncov.dxy.cn/>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근원에 대한 연구 강화 제시

- * 최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 우한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긴 했지만, 시초라고 볼 순 없다고 주장함(우한대 양잔추 교수).

● 서울시, 군 협력해 제독차 12대·병력 411명 투입 ‘코로나19’ 긴급방역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과 협력해 긴급방역을 실시함
-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달 24일(월) 긴급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서울시장)를 개최하고, 수도방위사령부(김선호 수도방위사령관)의 협력을 요청한바 있음
- 수도방위사령부가 보유한 K-10 제독차량 12대와 411명의 병력이 긴급 투입됨
 - * 제독차량에 한 번에 탑재 가능한 소독액은 최대 2,500ℓ, 도로세척 및 1,500㎡ 범위의 지역 소독이 가능한 규모임(차량 1대 3명 탑승, 작업반경은 45m 호스 탑재)



K-10 제독차 제원 현황

- 서울시는 매일 자치구별로 신청 받아 역사, 공원 같이 다수 인원 모이는 장소 중심으로 소독 실시 계획임
 - * 필요할 경우 선별진료소, 확진자 방문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역 장비와 인력(소독, 역학조사 행정보조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저녁6시까지 긴급돌봄 지원

- 서울시는 초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아침9시~저녁6시까지 긴급돌봄 제공(일부 센터는 아침8시~저녁8시까지 운영)
 - * 우리동네키움센터: 방과 후·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초등학교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공간임
-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후 일괄 휴원 조치 했으나, 종사자들 정상 출근해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위한 긴급돌봄 시행해 양육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
 - *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61개소, 지역아동센터 435개소 등 전체 시설이 긴급돌봄을 시행중이며, 전체인원대비 15%(키움센터 177명, 지역아동센터 1,762명, 2.28.기준)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별 키움센터 운영 현황

- 긴급돌봄 시에도 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종사자 및 돌봄아동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자제 및 출입대장 관리, 감염관리 전담 직원 지정 등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 중임
 - *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배너창 통해 접속 가능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방역현황 홈페이지(<http://www.seoul.go.kr/coronaV/cleanzone.do>)에서 각 지역별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현황(일명 클린존)확인 가능
- 특히, 현재 수급이 어려운 마스크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시설별로 직접 지원(재원 아동 12,842명 대상 250,000매)중에 있음
-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이 필요한 양육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https://iseoul.seoul.go.kr/icare>) 접속해 자치구별·지역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정보 확인 및 이용 예약 가능
 - * 상시돌봄 외 일시돌봄도 운영하므로 누구나 편하게 홈페이지 통한 예약신청 가능, 이용시간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서울시-(주)필트, '코로나19 확산 방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20만 개 지원



에티카 보건용 마스크

- 서울시는 3월 4일(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필트 사와 함께 취약계층 시민에게 보건용 마스크 20만 개를 지원한다고 밝힘
 - * (주)필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KF94) 자사 제작 보건용 마스크를 2월 말 1차로 4만 개를 기부한 데 이어, 3월 중에는 16만 개를 지원, 서울시에 총 20만 개의 마스크 기부 예정
- 마스크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임

-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주)필트의 협약은 마스크 사재기 및 품귀 현상으로 구매가 어려운 이웃들의 질병 예방은 물론, 경제적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주)필트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 공개문서 기반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 * 특히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총 확진자의 약 88%)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대구신천지 집회 ~2.16.)과 잠복기(14일) 등 고려 시,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전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
 - * (유입·확산 차단)국외 유입 차단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찾아내고 격리하는 '유입·확산 차단 전략' 지속
 - * (지역사회 확산)또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피해 최소화 전략'도 병행하기로 함

[대구지역 방역]

- 먼저, 감염 고위험군(신천지 신도)을 중심으로 환자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 고강도 방역대책 지속하기로 함
- 입원치료 병상 확보가 지연되고 자택대기자가 증가하는 문제 해결위해 '생활치료센터' 통해 경증환자 관리,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시민 중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 검사 계속 실시
- 충분한 병상 확보 위해 대구 지역 뿐 아니라 광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타지역 자원 지속 확보 계획

[전국적인 방역]

- 방역체계 강화 위해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 지속 확대, 국외 유행 상황과 국내 확산상황을 감안해 중국 등에 대한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함
- 신속한 역학조사 위해 개별 사례조사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시행, 의료기관, 집단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지원하여 확산 차단에 나섬

[환자치료 관리체계]

- 환자치료 관리체계 재구축하여, 전국적인 환자 증가에 대비
-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증상에 맞게 병상 등을 배정하고, 입원치료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
- 감염병전담병원 전국적으로 56개 지정·운영하고, 높은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로 확보
- 지역 환자치료, 방역활동 지원위해 신규 공보의 750명 조기 임용, 간호인력 민간 모집 통해 인력소요 적시 충족
- 일반환자 안전한 진료 위해 국민안심병원 운영, 신규 입원자 및 중환자실 진입자 원인불명 폐렴 지속 진단검사 실시, 응급실 내원 의심환자 진입 전 분리 공간에서 검사 실시

[사회적 조치]

- 국민행동수칙 협조 당부 ▲모임·외출 자제, ▲손씻기·기침예절 등 위생 수칙 준수, ▲감기 증상 시 3~4일 간 경과 관찰 후 보건소·1339 콜센터에 문의 등
- 어린이집 휴원(~3.8.),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3.23.)
- 집단시설 감염관리 위한 유증상자 등의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속
-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고위험군 대상 신속 진단과 격리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차단
- 타 지역 확산과 유행 장기화 될 경우 대비,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 감염발생 방지, 환자치료 및 의료체계 개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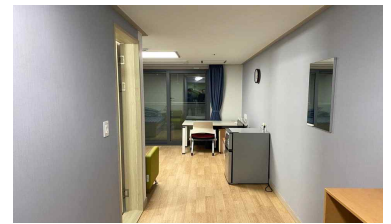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확산 방지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구축, ▲생활치료센터 선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등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자체 역학조사 역량강화, ▲취약시설 감염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대구1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

- 어제('20.3.2.) 운영 시작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는 3월 3일 8시 기준, **총 138명의 경증 확진자 입소를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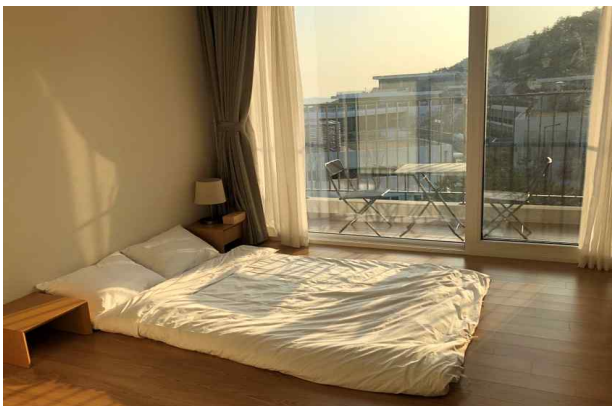
- * 입소자 중 41명은 병원(동산병원 39명, 칠곡경북대병원 2명)에서 퇴원한 확진자, 97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확진자이며, 오늘 중으로 22명의 경증확진자가 추가로 입소할 예정임
- * 당초 총 139명이 입소, 그러나 입소자 중 1명 발열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진료상담 이후 센터 상주 중인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장 사진

대구1 생활치료센터 운영 인력 구성

- **(의료 인력)** 의사 4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6명
 -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 지원 : 내과전문의 1명, 감염전문간호사 1명
- **(행정 인력)** 관계부처 및 대구시 직원 파견
 - 복지부 3명, 행안부 10명, 국방부 10명, 대구시 13명 등
- **(의료 물품)** 의무실 설치 완료 및 방호복 등 의료물품 완비
 - 방호복(Level-D 세트) 1,000개, 라텍스 글러브 2,100개, N95 마스크 3,000개 등
 - 자가관리 위생키트 220개, 검체 채취키트 320개 등 관련 키트 배송 완료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장 사진

- 오늘부터는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운영을 개시, 오후부터 확진자 입소가 이루어지게 됨
 -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235명의 경증확진자가 입소할 수 있음
 - * 센터 소재지 감안하여 대구시 이외 경북 경증확진자 입소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진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문경시 소재)을 활용한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 중, 경증환자 위한 센터 지속 확대 계획임

● 대구 진단검사 현황 및 개편 방안

- 현재 대구는 약 9,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부터 시작하여 전체 신도에 대한 방문 진단검사 실시, 확진환자 찾아 격리조치 하고 있음
- 3월 2일 기준으로 약 5천 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약 2,300여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음
- 방역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유증상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경과

- 신천지 교회 신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상유무 확인 전화 조사가 3월 3일 0시 기준으로, 98.7%(192,634명/195,162명) 완료, 그 중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는 49.6%**(6,561명/13,241명) 완료
- 대구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 완료된 신도의 **양성판정률은 62%**(2,685명/4,328명)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의 양성판정률은 1.7%**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신천지 신도 등에 의한 감염전파 방지 위해 유증상자의 자가격리 엄격히 관리할 계획

● 손실보상위원회 1차 회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화) 16시에,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논의 위해,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및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한 바 있음
- 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임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모집 안내 및 권고

-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기존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출범, 돌봄봉사자 공개모집함
- 돌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 등의 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제공인력의 확진 등으로 인력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이며,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돌봄 지원 대상자

- 가족의 코로나 확진, 입원 등으로 혼자 자가격리 되어 돌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확진, 격리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곳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 이외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구청장(군수), 재단이 인정하는 자 등

- 이를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대구시민 중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으로, 3월 2일(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함(소정의 급여 및 수당지급)

*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daegu.pass.or.kr>)에서 확인,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 ☎ 053-0812~3(24시간 운영)으로 문의하면 됨

COVID-19 발생에 대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응급의료시스템의 대응

(The response of Milan's Emergency Medical System to the COVID-19 outbreak in Italy)

Stefano Spina, Francesco Marrazzo, Maurizio Migliari, Riccardo Stucchi, Alessandra Sforza, Roberto Fumagalli

○ 개요

- COVID-19 감염증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최초 면대면 감염이 2020년 2월 21일 보고됨
- COVID-19 발생에 대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도권 응급 의료시스템(EMS) 대응 정리

○ 발생 전

- 2020년 1월 30일, WHO COVID-19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 그 후 이탈리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함
 - 중국발 항공 교통 중단
 - 중국 여행중인 자국민 송환 및 검역
 - 국제 공항 터미널 검역 강화
- 지역보건의료당국은 COVID-19 의심환자 식별하고 격리하기 위한 WHO 특별 권고사항 숙지
 - 의심사례 발견: 호흡기 질환 증상자, 지난 14일 이내 발병지역 방문자, 원인불명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밀접접촉 관계를 유지한 의료종사자 등
 - 의심사례는 SARS-CoV-2 테스트 가능하고, 격리환자 입원 시설을 갖춘 선별 된 의료기관으로 이송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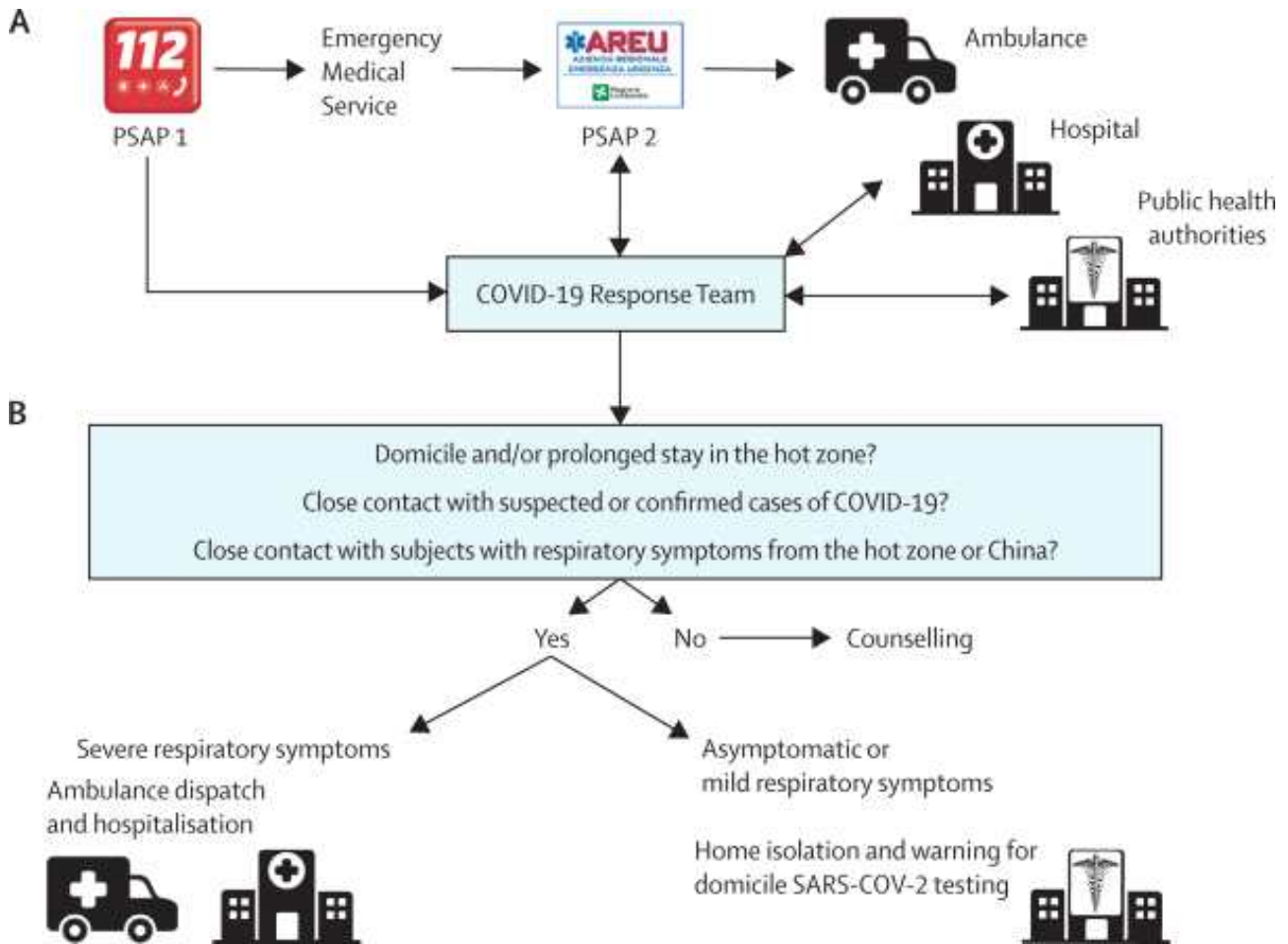
○ 발생 후

- 첫 번째 SARS-CoV-2 지역감염 사례 발생 후, 롬바르디(Lombardy) 지역 EMS(유럽 긴급 전화 112로 신고 됨)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위해 첫 번째 의심 증상환자 대응을 보고함
- 밀라노 EMS는 일상적 EMS 활동에 무리 없이 감염질환 대응을 위해, 숙련된 역량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COVID-19 대응 팀을 조직함
- 본팀은 10명의 의료 전문가와 2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24시 대응팀임

○ COVID-19 대응팀

- COVID-19 대응팀은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COVID-19 의심환자 발견 및 대응절차 설계함
- 의심환자 선별
 - 발생지(hot zone; 예를들어, COVID-19 최초 사례 발생지)에 거주 또는 장기 체류자
 - 의심자 또는 COVID-19 확진자 밀접 접촉자
 - 발생지(hot zone) 또는 중국에서 호흡기 증상 환자와 밀접 접촉한자
- 역할
 - COVID-19 대응팀은 병원 입원의 필요성 또는 SARS-CoV-2의 가족 검사, 후속 격리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된 개인의 임상적 상태를 평가하게 됨
 - 특별히 격리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다른 가족들에게 제공함
 - COVID-19 대응팀은 지역 병원 내 환자 이동 및 병상 자원 상황, 응급실 과밀화, 다른 전문시설로의 환자 전원 등의 COVID-19 관련 특정 이슈들을 처리함
 - hot zone 확장과 SARS-CoV-2 양상을 반영하여 알고리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EMS organisation and procedural algorithm of the COVID-19 Response Team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 EMS=Emergency Medical System /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A. EMS와 COVID-19 대응팀의 활동

- 발신자의 요구에 따라, 1차 신고 접수자는 일차 의료지원을 위한 일반 EMS 또는 SARS-CoV-2 감염에 대한 위험 요인 평가를 위한 COVID-19 대응 팀을 호출하게 됨
- 병상 자원 파악과 의료적 대응위해 COVID-19 대응팀은 지역 병원, 지역 공공보건당국과 직접 연락을 유지함

B. COVID-19 대응 팀의 COVID-19 의심환자 발굴 및 관리 알고리즘

- SARS-CoV-2 감염 위험 요인과 개인의 임상적 건강상태 기반으로 COVID-19 대응팀은 병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SARS-CoV-2 검사 필요성을 결정함
- COVID-19 대응팀은 감염질환 비의심자, 자가격리자 및 가족들에게 호흡기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권장 사항 및 예방조치 등 상담 .

○ EMS 대응력 강화 필요

- 향후 바이러스 확산은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대응력**은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임
- 동일하게, EMS는 SARS-CoV-2 발생과 직결되어 있음
- COVID-19 발생에 따른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올바른 자원 배분을 위해 **EMS 체계 내 특화된 알고리즘, 정교한 프로토콜 및 전문역량을 갖춘 팀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함

● 코로나19 어제하루 600명 추가 확진, 총 4천812명…사망 29명(종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천81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2일) 0시에 비해 600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확진자 600명 가운데 580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519명, 경북 61명이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7명, 부산 2명, 광주 2명, 경기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3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063152017?input=1195m>)

● 코로나19 대구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경 '신천지신도→일반시민'

정부가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일반 대구시민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민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볼 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지대구 교회 9천여명 신도 중 유증상자 1천300여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02951017?input=1195m>)

●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코로나19 환자는 무조건 '입원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심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신부, 장기이식 경험자 등은 현재 보이는 증상과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그 외 코로나19 확진자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돼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로,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받는다. 환자 격리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수는 있으나, 발병일로부터 3주가 되는 날까지 집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형식으로 지내거나, 이후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된다. 중증환자의 병상은 병실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 1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음압 1인실이 없으면 음압 다인실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1인실, 일반 다인실, 병원 한층의 모든 병실 순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2140751017>)

● 정부, ‘코로나19’ 마스크 생산 지원 등 예비비 771억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2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긴급 돌봄 지원과 대구·경북 지역의 방역체계 강화 등에도 예비비를 풀어 총 77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지출안을 보면, 먼저 최근 마스크 대란에 대한 수급 대책에 예산이 책정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지급하고 전국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200만장을 보급하는 데 22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유치원·각급 학교 등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가정에 가독돌봄 비용 21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출안에 포함시켰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0818.html)

● 문 대통령 ‘감염병과의 전쟁 돌입’…정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 생산물량 확대 지원 ▲ 공평한 보급방안 강구 ▲ 공급상황 투명한 홍보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경제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상 경제 시국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긴급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30조원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한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한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의 콘트론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3_0000940376&cID=10899&pID=10800)



● 공적 마스크 구매, 약국서 가능…편의점서는 사실상 불가능

전국 2만3000여 약국에서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보건용 마스크를 1장당 1500원 이하의 가격에 1인당 5장 이하를 살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지오영·백제약품 등 의약품 유통회사와 지난 2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매일 240만장씩 약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약국은 하루 100여 장씩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으며 소비자 1인에게 5매 이하, 1장당 1500원 이하에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편의점도 공적 마스크 유통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국내 생산 물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중앙일보(<https://www.kinds.or.kr/>)

● 대구시장 “병상 확보에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병상 확보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 긴급명령권을 발동 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3000실 이상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이들 시설에 배치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며 정부에 의료인 지원을 요청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30688.html>)



● 병상대란 해소 ‘생활치료센터’ 아직 갈 길 멀다

생활치료센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지침을 변경해 ‘봉쇄전략’에서 ‘피해 최소화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확진 환자에 비해 생활치료센터 확보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가 대기 중인 환자 2000여명의 3분의 1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확진 환자의 급증세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로 가동을 시작한 중앙교육연수원에는 이들을 치료 관리하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 등 60여명이 파견됐다.

출처 : 뉴시스(<https://theworldnews.net/kr-news/bbyeonssanddaran-haeso-ssaenhwalciryosseteo-ajji-gga-ggi-meolda>)

● 대구 성보재활원 9명 코로나19 확진...중증장애인 5명 서울 이송

대구 북구 장애인 거주 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 5명을 포함해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대구시는 서울시와 협의해 장애인 감염자를 서울시 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감염 장애인 중 3명은 고혈압, 당뇨, 뇌전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직원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마침 서울에서 받아주기로 해서 조금 전에 이송할 병원이 협의됐다”라며 “시설 내 다른 주의가 필요한 입소 장애인은 우선 현재 장소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인(<http://www.newsmin.co.kr/news/46289/>)

● 서울시, 코로나 방역에 군 장비 투입..제독차 12대·병력 411명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군 병력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3일 수도방위사령부가 보유한 K-10 제독차량 12대와 411명의병력을 긴급투입해, 다수가 모이는 공원등의 공간에 대한 방역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달 24일 긴급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이 같은 내용의 협력을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는 매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역사, 공원 같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003030812236862>)

● 코로나19로 돌봄공백...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초등학교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자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61개소, 지역아동센터 435개소 등 전체 시설이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상시돌봄(종일돌봄 등 정기적 돌봄) 외에 일시 돌봄도 운영하므로 누구나 편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별 이용시간은 다르니 이용 전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3_0000940420&cID=14001&pID=14000)

● **서울시, 차 안에서 검진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4개소 운영**

서울시가 차를 타고도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설치 4개소는 서울 은평병원(은평구), 소방학교(서초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구), 이대서울병원(강서구)이다. 이대서울병원은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진료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접수부터 진료와 검체 채취 등 모든 과정을 차에 탄 채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대기자 간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검체 채취 시간도 기존 1시간가량에서 10분 내외로 줄어든다. 한편, 서울시는 선별진료소의 수도 늘릴 계획이다.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현재 30개소에서 3월 말까지 50개소로 확대하고, 서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44개소를 7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한겨레(<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0664.html>)

● **8200명 온다더니..중국 유학생 54%가 입국 취소**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절반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4~29일 입국 예정이었던 중국인 유학생 8234명 중 3818명만 실제 입국했다. 53.6%인 4416명이 입국을 취소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은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유학생 출국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휴학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02190646815>)

●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가동 첫날 차분한 분위기**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 건물은 코로나19 경증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할 공간인 생활치료센터로 변신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며칠간 대구에서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급히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는 병상이 160개밖에 안 돼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 숫자를 고려하면 부족한 형편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대구에는 3천개 이상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진 총원도 과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증환자다 보니 의료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할 수도 있지만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2084351053>

● **유치원·초중고 23일로 개학 또 연기...사상초유 '3주 휴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개학 연기 기간에 학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추가 개학 연기 등을)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2138553004>)



● **與 "질병본부 '청' 승격...의대 정원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보건의료 부문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정부 조직을 키우고 의대 정원도 이참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민 안전, 보건과 관련해 타협할 생각이 없고 가장 우선은 국민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의협 등 관계자들과 토론해 간극을 좁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0/03/214590/>)

민주당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

-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 지역본부 6곳 신설, 검역소 5개 추가 설치
- 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 추진
- 의대 정원 확대 통한 의료 인력 확보
- 감염병 전문병원·음압 병상 확충
 -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칼럼] 코로나19 유행에 맞선 시민행동 두 번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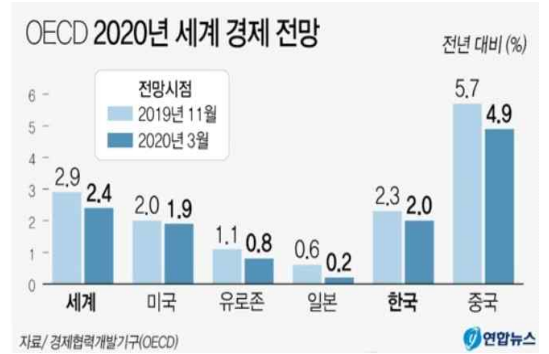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맞선 시민행동을 제안한다.

1. **'중계방송' 시청 줄이기** - 방송 뉴스든 인터넷 뉴스 검색이든 이번 유행에 대한 소식 찾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두 차례로 줄이자. 그리고 '낙시형' 제목보다 정보형 제목의 뉴스를 보자.
2. **마스크 양보하기** - 요즘과 같은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부터 배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당연히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모여 있고, 많은 환자를 만나야 하며, 그중에는 감염자도 있을 수 있다. 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접촉하고, 자주 말을 해야 하며, 특히 그 일을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우선순위가 높다.
3. **개인적 거리가 아닌 '사회적 거리'** - 오랜 시간 실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회적 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하지만, 본래부터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겪을 위험 또한 같이 줄여야 한다. 철저히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들이 일하고 돈을 벌며 생활의 물질적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되자.
4. **'전수조사'와 '동선 추적'에 덜 불안해하기** - 완전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완벽한 동선 추적도 (속은 시원하겠지만) 비현실적이다.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몇십, 몇백을 넘으면 개인행동 수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전수조사와 동선 추적에 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혹시 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5. **빠지고 빈 곳에 주목하기** - 우리는 인터넷도 하지 않고 스마트 폰도 없는 분들을 잊기 쉽다. 아예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노숙인,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거주자와 수용인 등은 또 어떨까. 관심을 두고 그런 곳과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행동수칙과 같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 마스크나 생활용품과 같은 자원을 나누는 실천, 지역 공동의 노력이나 외부 지원을 촉구하는 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공공성'을 조직하고 실천하면, 이 또한 공공의료 강화라 할 것이다.

출처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61#_adTive

- OECD, '코로나19' 확산 속 한국 올해 성장률 2.3→2.0% 하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속에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3%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조정 배경을 두고 "중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는 공중보건 지원과 기업·노동자 단기 피해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추가 재정지원과 단축 근무를 통한 고용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2177000002>)

● 2월 소비자물가 1.1% ↑...코로나19 여파 서비스물가 20여년 만에 최소 상승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일부 서비스 품목 가격 하락으로 서비스물가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0.4%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행·화훼 등 물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했다. 마스크 가격 관련해 온라인에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긴급수급조치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전체 큰 수치로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일부 품목에 개별적으로 한정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0813.html)

● 중기중앙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대책 회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나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347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WHO "한국·이탈리아·이란·일본의 코로나19, 최대 걱정"

세계보건기구(WHO)는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의 전염병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concern)"이라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4천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확진 사례는 지역 사회보다는



이미 알려진 5개 집단의 의심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감시 조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염병은 여전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001752088?input=1195m>)

● "미국은 왜 못하나"...한국 '선진의료+투명한 리더십' 주목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미국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여행 제한을 둘러싼 미국의 신중한 접근에는 이런 인식도 한가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탈리아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검토했음을 내비치면서도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공중 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071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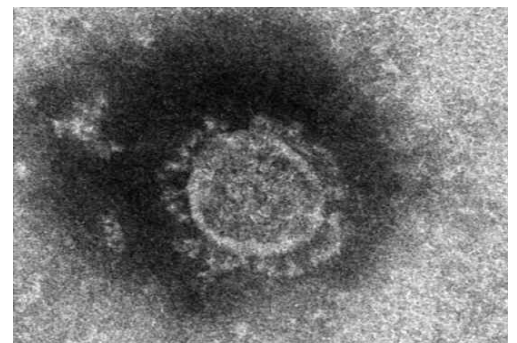
● 일본 언론 "코로나 검사건수,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일본 언론이 자국의 부실한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비판하며 "검사 건수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는 지방위생연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한 검사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사회는 부적절한 거절 사례는 없는지 자체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에 3830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일일 최대 검사 건수는 1594건(2월 21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하루 최대 검사 건수는 1만4753건(2월 29일)으로 (일본의)1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21646001&code=970203)

● "산소호흡기 환자 완치됐다"...의료진이 찾아낸 코로나 약

일본에서 천식 치료약을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됐다. 3일 NHK에 따르면 천식 치료에 쓰는 들라마시는 형태의 약을 신종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증상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일본감염증학회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의료진은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폐렴 환자 3명에게 천식 치료약인 '시클레소니드(Ciclesonide)'를 본인 동의 하에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폐까지 약 성분을 흡입시킨 결과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상 사례가 너무 적어서 아직 효과를 평가하긴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20479>)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 의식이 떨어진 경우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증(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증(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현황]

[서울시]

2020. 3. 3. 기준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	02-6925-1111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	02-1877-8875
3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	02-1588-3330
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858-0100
5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	02-950-1114
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77-3675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58-8114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	02-966-1616
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90-8114
1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912-0100
1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29-5114
1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	02-2632-0013~8
1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5700
1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	02-2270-0114
1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19-2114
16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	02-1544-7522
1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25-1111
18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440-8114
1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1522-7000
20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26-1114
2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	02-970-8000
22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6299-1114
23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70-2114
24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99-1004
25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	02-396-9161
26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1511
27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20-5114
2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50-5114
29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	02-2604-7551
3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709-9114
31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	02-353-5511~9
32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01-2001
3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	02-2002-8000
34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	02-737-0181
35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60-7114
36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	02-437-5011
37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	02-490-2000
총합	19개 자치구	37개소	외래 18개소, 외래, 입원, 선별진료19개소	-

(시도)	기관명
부산(27)	좋은문화병원, 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삼육부산병원, 좋은강안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영도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세웅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부산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구포성심병원, 부산대학교병원*, BHS한서병원, 부산센텀병원, 에스병원, 오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18)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기독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더드림병원, 길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뉴성민병원, 온누리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대구(12)	영남대학교병원, 드림병원, 대구보광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대구시티병원, 천추성삼병원, 푸른병원
대전(5)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울산(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21세기좋은병원, 울산시티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강병원
경기(55)	명지병원*, 자인메디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바른마디병원, 이춘택병원, 센트럴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메디인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디에스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지샘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정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수원병원, 월스기념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 안성성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오산한국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성베드로병원, 이천엘리아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하남SD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강원(4)	강릉아산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8)	한국병원,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진천성모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남(9)	백제병원, 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아산충무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우리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전북(7)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전남(9)	장흥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고흥종합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경북(11)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
경남(22)	맑은샘병원, 조은금강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진영병원, 밀양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바른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청야병원, 365병원, 마산서울병원, CNA서울아동병원, 연세에스병원
제주(4)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총합	14개 시도 (198개소)

별(*)표시 기관은 아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	02-1577-0083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학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